

에스겔 16강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며, 또 성령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7장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임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못 깨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사탄이 그 당시에 조롱했죠, 그러나 지난 2천년 동안에 인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 분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볼 때 실패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분이 살아났을 때는 사단은 깜짝 놀랐죠,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우리 7장에 들어갑니다. 1절부터9절까지 읽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또, 너 인자야,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끝, 그 끝이 땅의 네 모퉁이에 이르렀도다.

이제 끝이 네게 임하였으니 내가 내 분노를 네게 보내어 네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네게 모든 가증함으로 보응하리라.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네게 보응할 것이며 너의 가증함이 네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재앙만이 임하였도다.

끝이 왔도다. 그 끝이 왔도다. 끝이 너를 찾나니 보라. 끝이 왔도다.

오 그 땅에 거하는 자여, 그 아침이 네게 왔도다. 그 때가 왔도다. 고난의 날이 가까웠으니, 산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라.

이제 내가 곧 네게 내 진노를 붓고 내 분노를 네게 이루리라. 내가 네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네게 보응하리라.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행위와 네 가운데 있는 가증함에 따라 네게 보응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치는 주인 줄 알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이 이스라엘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 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엄청난 연단을 했죠. 결국은 서기 70년에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국만 해도 600만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 속에서 끝이 나고 심판할 때 끝이 났다가 또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끝과 시작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르렀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한 이레입니다. 마지막 7년 대 환란을 말씀합니다. 이 끝이 이르렀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재앙이 이르렀다. 고난의 때가 이르렀다. 완전히 클라이막스가 이르렀다는 얘기죠. 대 환란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이요. 죽은 자가 복되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대 환란에 안 들어가고 죽었다가 지옥 가는 게 낫죠, 불 못에 가는 게 낫죠, 그러기 때문에 휴거된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주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부터 진짜 고난이 올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사도요한을 통해서 보여 주신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고난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욥이란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스 땅에 있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죠, 욥은 42개월 동안 42장에 이르는 그 고난,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그러한 고난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욥기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

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했던가. 왜냐하면 대 환란 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대 환란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엄청난 끝이 되는 재앙의 끝이 되는 대 환란이 우리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때에 따른 양식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되죠. 이 끝이 시작 되면 엄청나게 다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죠, 24장에 뭐라 했어요? 그때 집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고, 얼마나 급하면 말이에요, 또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려 들어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25때 인민군이 들어오는데 제 동생을 낳았거든요. 인민군이 집에 들어오는데 동생을 낳았다구요. 저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있으리라. 이게 그 얘기에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없도록 기도하라. 이걸 문자 그대로예요.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영적을 푼다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사실 대 환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와 상관없으니 편하게 지내자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들을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면 강권이 안 돼요. 절대 안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식구들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붙잡고 늘어집니다. 울고 불고 늘어 진다구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그러죠. 우리는 대 환란 직전에 올라가거든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열심히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요한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끝이 언제 올 것이며 그 끝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아모스8장 1절부터 3절까지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도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왔도다. 또 나오죠, 끝이 왔도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그 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애곡이 될 것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모든 곳에 많은 시체들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용히 내어 버리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에게 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여름 과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추수 하는 게 가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본 추수가 오순절 절기가 여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로 뭐라는 가면 킷츠 라고 그래요. 킷츠, 여러분 그리고 끝이라는 말은 키이츠예요. 여름 과일은 킷츠고 끝이란 말은 키이츠예요. 여름 광주리를 보여줬죠, 킷츠를 보여주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한국말로 보면 실감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모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름 광주리가 끝이란 뜻입니다. 키이츠인데 그것이 키이츠가 되면 그게 끝이란 거예요. 여름 광주리가 뭐죠? 끝이 왔다는 얘기에요. 끝이 왔다. 하나님께서 킷츠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무엇이나고 물으셨고, 아모스가 킷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키이츠야 그런 거예요. 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참 센스유모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름 한 광주리를 보고도 그 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리한 시대 여름 광주리를 보고서도 끝이 왔다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날과 그 시간에 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못 박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라. 배워라 그 가지가 유연해 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줄 너희가 아나니, 여름이 뭐죠? 끝이란 얘기고, 추수 때, 1948년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질 때 끝이 됐다. 추수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

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연해진 것은 독립한 것이고 지금 잎사귀가 많이 났죠? 만 오천 여명의 메시아닉 주(Messianic Jew)들이 있습니다. 잎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은 수확의 계절이죠. 이스라엘 땅은 수확이 여름이에요, 가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0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나.

여름이나 추수 때나 같은 얘기에요. 세상 끝에 잠자는 자 수치를 가져온다. 지금 세상 끝이 거든요. 또 여름, 세상 끝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자다. 세상 끝에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거두는 자는 현명하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온다. 또 여러분 많이 읽었겠지만 잠언 6장 시편과 잠언을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6장 6절~8절 보겠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리는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추수 때 나오죠, 세상 끝입니다. 이게 세상 끝 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명철 있는 사람은 깨달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명철과 지혜를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재림한 예수님이 요한 계시록14장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쳐다보니 14장 14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왜 낫을 가졌습니까? 곡식을 거두려고, 14장 15절 가 보니까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리라.

이건 뭐가 면 대 환란 끝에 휴겁니다. 환란 성도들, 이삭줍습니다. 환란 성도들 그러니까 주

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기 전에 대 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곡식들, 성도들이죠,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요, 데려가시죠, 이것은 지금 환란전의 휴거와 다른 거죠. 환란전의 휴거는 여름 추수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에 누룩 있는 두 보리빵을 가지고 흔들었죠,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이에요. 둘 다 죄인이죠, 하늘을 향해 막 흔들어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을 거둔 다음에 14장 18절 가니까,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는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포도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여름 과일, 우리 한국도 여름에 열리죠, 따라서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 곧 여름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포도송이가 끝을 맺을 계절이라. 그 끝입니다. 바로 에스겔서7장에 있는 그 끝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는 수확되고 포도즙 틀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19장에 주님 오시면 포도즙 틀을 밟는다고 그랬죠. 말씀이 다 통하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모르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전체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고 때를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계시록 14장 19절20절 보면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 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일천육백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것이 그 끝입니다. 아마겟돈, 이게 바로 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수난,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와 그를 따르든 모든 이방사람들 진리를 거역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민족들이 멸망당하고마는 바로 그 끝입니다. 끝과 그 끝은 다르죠, 그 끝이라는 것은 바로 7년 대 환란 마지막 한 이레, 69이레는 다 지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69이레가 다 지났고 2천년동안 왕이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왕이 공중에 딱 나타나실 때 그 때부터 7년입니다. 한 이레 남은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그러한 심판을 받드시 거쳐야만 죄가 용서되게 되어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 본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주 인 줄 알리라. 그러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3절 한 번 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네게 임하였으니 내가 내 분노를 네게 보내어 네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네게 모든 가증함으로 보응하리라.

이스라엘과 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 여기에 대한 대 환란은 하나님의 분노를 발하는 거죠. 오래 참았죠, 6천 년을 참았습니다. 천 년을 하루처럼 참았죠, 주님 오신다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참는다고 그랬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느냐? 예수님 온다는데 언제 오느냐? 놀리죠. 오실려고 그러다가도 말이죠, 또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이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실려고 그랬죠. 오실려고, 다시 앉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 언제쯤 일어난다고 그런 사람, 따지고 욕하고 그러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기다리다 보면 여러 가지 비전도 보여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 해피해요. 안 오시면 또 오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문제죠, 언젠가 오시니까. 그 한 날 그 때 오실 때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시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를 불 못에 산채로 던지면서 7년 대 환란이 끝이 나게 되죠.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네게 보응할 것이며 너의 가증함이 네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7년 대 환란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인정, 사정없는 겁니다. 철저한 보응입니다. 이걸 보응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는 남은 자들은 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시구나. 이렇게 남은 자가 있게 하는 거예요. 보응으로 다 끝나고 다 죽여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소수라도 옛날 남자만 60만 나왔을 때 단 두 사람만이라도 깨닫게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했죠. 마찬가지로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일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교회도 보면 그래요. 누가 나가면 그 일 할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나간 사람만 손해야 그러니까. 꼭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 없는 게 아니예요. 특별히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축복 이에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교회가면 써주질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큰 교회 나갔는데요. 천 몇 백 명 있는 교회 나갔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나요? 누가 그래서 나 좀 써 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안내하는 거더라고요. 주보 나눠주지도 못해요. 주보 나눠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앉히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보 나눠 주는 거시키고 구역에서 찬양 인도 하는 거 시키고 무릎꿇고 찬양을 한 시간 인도했어요. 구역 예배서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박수를 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니 구역장을 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대우 받고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것 재미없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꼬래비더라고요. 나이는 들었는데 말이야. 이십대 전도사들이 부럽더라고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을까? 존경스럽다. 집에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어요.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이 개척교회하면 뭐 부담을 느낀다고 그래. 누가 무슨, 그게 아니라 여기 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14만 4천명이 바로 남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있습니다. 14만 4천외에 유대인도 있고 또 교회 다니다가 휴거 못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 그 때 예수 믿는 사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5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재앙만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봤죠, 어떤 재앙이 있는가? 첫째 봉인이 열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요. 둘째 봉인이 열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 봉인이 열리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넷째 봉인이 열리면서 지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 또 첫째 대접 호리병, 둘째, 셋째, 일곱째, 그러면서 큰 지진, 진노의 포도주의 잔 모든 섬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산을 들러 바다에 던지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산들도 보이지 않게 돼요. 또 우박이 불링공만한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는데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대 환란을 통과하겠다는 사람은 용기가 100배있는 사람 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지금 이 땅에서 몸만 좀 아파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암만 걸려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왜 나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보라 재앙이 재앙만이 임하였도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수 있는 것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깨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6절에

끝이 왔도다. 그 끝이 왔도다. 끝이 너를 찾나니, 보라, 끝이 왔도다.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여기에 곡조만 붙이면 장송곡입니다. 끝~이 왔도다~. 그 끝~이 왔도다~. 무서운 장송곡이요, 이것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 예요. 마지막 7년은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 예요. 온 땅을 심판하는 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 하겠습니다.

7절부터 다른 요엘서 같은데 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끝이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때에 따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대로 온 민족들이 그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시 한 번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단 한 순간에 역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날

바울이 바울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날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